

DHL, 국제특송·포워딩 실적 개선 속 물류 자동화·성장산업 투자 확대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DHL 그룹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물류
□ DHL 그룹은 국제특송·화물운송 수요 회복과 운임·용량 관리를 기반으로 2026년 2분기 매출 224억 유로, 영업이익 19억 유로를 기록하며 물류사업 실적이 개선 ○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% 증가한 224억 유로, 영업이익은 30% 증가한 19억 유로를 기록하며 영업이익률도 8.3%로 상승하는 등 그룹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 - 국제특송 화물 중량 증가와 항공화물 공급여건, 운임·용량 관리 등이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비용 효율화 프로그램인 'Fit for Growth'를 병행하여 영업이익을 확대 - 2분기 실적 개선을 반영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62억 유로 초과에서 65억 유로 초과로 상향하고 약 30억 유로의 잉여현금흐름 목표를 유지 ○ 국제특송과 글로벌 포워딩을 중심으로 물동량과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사업부문별 시장여건에 따라 실적 차별화가 지속 - DHL 익스프레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.5% 증가한 71억 3,200만 유로, 영업이익은 64.3% 증가한 12억 유로를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을 16.8%로 확대 - 글로벌 포워딩은 항공·해상 화물량 증가로 매출이 17.9% 증가한 54억 4,800만 유로를 기록한 반면 이커머스와 독일 우편·소포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 □ 물류 수요 변화에 대응해 항공기 교체·창고 및 분류 자동화 등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헬스케어·신에너지·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성장물류 사업을 강화 ○ 「전략 2030」에 따라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처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항공기·물류시설·자동화·디지털 기술 투자를 확대 - 2026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% 증가한 13억 유로를 기록하고 익스프레스 항공기 교체와 창고·분류시설 자동화, 디지털 기술 등에 투자를 집중 -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자동화·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처리역량을 강화 ○ 생명과학·헬스케어, 신에너지, 데이터센터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전문 물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 - 미국·영국·싱가포르·한국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네덜란드 배터리 물류센터 등 산업별 특화 물류 인프라 투자를 추진 -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흐름 변화에 따른 공급망 회복력·유연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별 물류역량을 연계한 공급망 서비스를 확대							

※ 출처 : DHL Group(2026.08.05), DHL Group seizes growth opportunities and significantly increases revenue and earnings in the second quarter